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 열어갈 터

▶ 유진섭 정읍시장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합차게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황금돼지 해’인 2019년이 새로운 정읍,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올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정읍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시민의 삶과 정읍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임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난 6개월여 동안 시민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준비해온 미래 희망 정읍의 밑그림을 구체화하겠습니다.

희망 넘치는 정읍 실현을 위해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그리고 산업단지 등 지역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해 시민의 실제소득과 행복지수를 높여드리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고,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행정의 힘만으로는 정읍이 직면하고 있는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탁동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알속의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는 껍질 안에서 병아리가 쪼는 동시에 이미 닭이 밖에서 쪼아 알을 깨뜨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시장을 중심으로 한 행정이 정읍발전을 위해 해 사력을 다할 때 개개인은 물론 각계각층 모든 기관, 단체들에서도 못한 건 비판하되 지지하고 힘을 모아 줄건 지원하고 힘을 모아줘야 합니다. 밝고 희망찬 정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듯 상상과 화합이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율탁동시의 힘으로 ‘더불어 행복한, 더 좋은 정읍’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 만들 것

▶ 이환주 남원시장

독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여러분! 복을 가져다준다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올해 남다른 각오와 실천으로 ‘친절하고 살맛나는 천년남원’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친절의 품격을 높여 정이 넘쳐 살맛나는 남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청조직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합니다.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2022년 개교를 목표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눈앞에 놓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불확실성이 점증하면서 빛의 속도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모아 평이근민(平易近民)의 마음으로 더 친절하게 시민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시정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이 바로서는 ‘정의로운 김제’

▶ 박준배 김제시장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 출향인 여러분!

희망찬 2019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며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역대 최대금액인 7,031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고 전국 최대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38개 공모사업 선정과 지방혁신평가 대통령기관 표창을 포함한 3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제시는 2019년도 시정방향으로



다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로 정하고,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본이 바로서면 나아갈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가 한마음을 한뜻이 되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건강과 행운이 넘치는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성일 완주군수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 기해년(己亥年)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날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올해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황금돼지는 재물이 많이 따르고, 큰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전주매일 독자여러분, 올 한해 희망하는 모든 일 성취하고,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완주군도 여러분의 성원과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대한민국 으뜸도시, 인구 15만 자족도시로 도약해 마부정제하겠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사자성어를 ‘유지사성(有志事成)’으로 삼았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 내겠다’는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하면 마침내 그 뜻대로 이루어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올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소득과 삶의 질 높은 15만 자족도시 완주’ 비전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담아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유지사성의 마음으로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독자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결같은 마음으로 ‘무주답게’

▶ 황인홍 무주군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해년(己亥年) 한 해는 황금돼지의 기운을 받아 행복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무주군은 시내일신(時乃日新), ‘처음부터 끝이 오직 한결같아야 나날이 새로워지고 발전한다’는 뜻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2019년은 ‘무주를 무주답게 군민을 행복하게’라는 군정 목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하는 원년으로, ‘세계적인 으뜸관광, 건강가득 소득농업, 함께하는 주민복지, 지역맞춤 특색개발, 움직이는 자치행정’, 이 5가지 군정지표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적 레저관광권국 무주를 건설해 관광객들이 무주에 넘쳐나게 만들고 세대와 전통을 잇는 찬란한 향토문화 창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구성원 모두가 밝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 지역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견실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졸출한 복지시스템 구축에 다함께 채우고 나누며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



우침 없이 고른 발전을 주도해 6개 읍면 발걸 닿는 곳 어디라도 아름다운 무주강산을 가꿀 것입니다.

현장중심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군민들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결심, 그리고 오늘 다짐과 각오를 잊지 않고 항상 소중히 행하는 일상이 되는 무주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성기는 마음으로 무주사람들이 만드는 무주, 무주사람들이 행복한 무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 군민여러분과 공직자들이 동력이 돼 줄 것을 확신합니다.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무주를 그려봅시다!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믿음으로 성원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건강이 우선이고 근간입니다. 건강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 넘치는 진안 만들기’ 포기하지 않을 것

▶ 이항로 진안군수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민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후한서 경언전에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라는 뜻의 이 사자성어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성공을 이룬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희망진안 만들기 ‘유지경성’의 뜻을 품고 민선 7기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기해년 새해에도 진안의 미래 자산을 청정환경을 지키고 군민 소득향상으로 잘 사는 고장 만들기 위해 힘쓰는 한



편, 사람과 돈이 모이는 관광진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의 뜻과 바람에 따라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진안, 행복이 넘치는 진안을 만들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오직 우리 군민과 우리 군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노력에 믿음과

역량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도시와 농촌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해에도 희망 가득한 진안을 군민과 함께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에 최선을

▶ 장영수 장수군수

2019년 희망찬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장수군수 장영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더욱 번성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수군의 지난 2018년은 민선 7기 공약사업 7개 분야 107개 사업을 선정해 군민에게 알리고 돈 버는 농업농촌 등 군정 7개 방침을 추진해 장수군이 도약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다지는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군은 예산 3000억원 시대 진입으로 농민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군 청사 증축준공, 농어촌임대주택 준공, 장수읍 LPG배관관 구축 완료, 장수가야 유적지 및 복원, 전국 최초 장수 로컬 JOB센터 개소 등 주요 핵심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새해에는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를 구축과 장수 백두대간 둘레길 명품화 탐방길 조성, SOC구축을 위한



예산이 최대 확보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부정제(馬不停蹄),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19년 기해년에도 장수군은 군과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마부정제의 자세로 멈추지 않고 정진해 미래의 도약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농촌,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교육, 생동하는 장수가야 역사·문화, 신뢰받는 열린군정, 사람 중심 관광도시,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 풀고루 잘 사는 지역개발을 통해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 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실용·실속행정 정착 ‘소득·행복·사람 UP 부안’ 실현

▶ 권익현 부안군수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로 세계로 뚫고가는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열어가는 부안군수 권익현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한 친구 같은 동물 황금돼지띠의 해 2019년 기해년이 밝았습니다.

황금돼지는 예로부터 재물과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6만 부안군민과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모두 황금돼지의 영험한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가정 모두에 새로운 희망과 행복, 즐거움이 가득 하길 잘 기원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부안군은 변화와 혁신, 실용·실속 행정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사상 첫 예산 6000억원 시대를 열어 지역발전과 군민 소득 향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만년 전국 최하위권이던 청정도는 3단계나 수직 상승해 역대 최고인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뒷받침 할 세계잼버리 지원특별법도 제정했습니다. 300억원 규모의 전북교육수련원도 올해부터 착공됩니다. 부안 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가력선착장 확장 공사도 당초보다 140억원 늘어난 국비 1012억원 규모로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안 실현의 발판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들을 바탕으로 군민의 소득이 향상되고 군민의 행복이 커지고 부안에 사람이 늘어나는 소득 UP, 행복 UP, 사람 UP 등 ‘부안·3UP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견적례와 형식을 탈피한 일 중심의 생동적인 실용·



실속행정 정착을 통해 새로운 부안 실현의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3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와 새만금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 등 세계 속의 부안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회를 열어겠습니다.

공동화된 마을에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생기가 돌도록 공동

체복원사업과 농촌활력사업, 스마트농업, 농수산물 관광상품화, 푸드플랜사업 등을 통해 농식품산업 일지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대 과제인 재생에너지산업의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 추진과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구축, 수소 테마 자연에너지공원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수소산업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유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최대 휴양관광도시 부안 실현을 위해 변신해 수목장 관광객 유치, 부안마실길 정비, 격포·공항권 관광자원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개발,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혁신적인 관광패러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1500만 유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통합센터 운영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 부안상설시장 특화거리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2019년에도 부안군 1000여명의 직원과 함께 새로운 부안 실현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